

【 해외금융 뉴스: 일본 】

생보 상위 4사, FY09 하반기 자산운용계획 발표

□ 일본의 주요 생명보험회사가 발표한 FY2009 하반기 자산운용계획에 따르면, 상위 4사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자산운용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짐.

- 니혼생명(9월말 기준 자산총액 약 45조 4천억엔), 다이이치생명(약 29조엔), 메이지야스다생명(약 23조 9,100억엔), 스미토모생명(약 20조엔) 등 생명보험 상위 4사는 글로벌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국내 채권, 대출 등과 같은 안정적인 자산 투자의 비중을 확대해 나갈 방침임.
- 메이지야스다생명은 국내 채권 투자 금액을 상반기보다 약 2,500억엔 증액할 계획이며, 최대 생명보험회사인 니혼생명 역시 약 6천억엔을 국내 채권에 투자하기로 하는 등, 4사 모두 채권 투자 비중을 늘릴 전망이다.

□ 반면, 최대 생명보험회사인 니혼생명은 경제가 호전되고 있는 현재를 투자 적기로 보고 주식 투자 규모를 크게 확대할 계획을 밝혀 귀추가 주목됨.

- 주식투자 계획에 대해 메이지야스다생명은 자국 증시 상황의 변동성이 상존한다는 이유로 상반기보다 비중을 축소하고 외국주식의 경우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한정해 적기에 투자한다는 계획임.
- 다이이치생명과 스미토모생명도 국내외 주식 투자에 대해서 모두 현재의 비중을 유지하기로 함.
- 반면, 최대 규모의 자산을 운용중인 니혼생명은 안정적인 자산운용 기조 속에서 최근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해 국내외 주식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을 밝혀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음.

일본 주요 4대 생보사 2009년도 하반기 운용 계획

	니혼생명	다이이치생명	메이지야스다생명	스미토모생명
국내채권	비중 대폭 확대	비중 소폭 확대	비중 확대	비중 확대
환헤지 외채	비중 확대	비중 유지	비중 축소	비중 유지
국내주식	비중 대폭 확대		비중 소폭 확대	
외국주식	비중 유지		비중 유지	
부동산	비중 유지			

자료 : FujiSankei Business I

(각 사 홈페이지, FujiSankei Business I, 10/21)